

제1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김봉중 역사학자 '2024 미국 대선과 우리 강연'

“자국 우선주의 회귀 미국에 원칙 갖고 대응해야”

트럼프 '예상 밖 당선' 키워드는 백인 분노·잘못된 정보·저학력 걱정·우려보다 '우리'를 믿어야 내달 3일 졸업식·원우의 밤 행사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나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초까지 미국 사람들은 세계 정세에 등을 돌리고 미국 우선주의에 빠져 살았 어 요 . ' M a k e America First Again.' 오랜 시간이 흘러 미국이 다시 자국 우선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 편승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무관심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미국과 대응하면 됩니다.”

제12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마지막 강의가 지난 26일 라미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진행됐다. 전남대 사학과 김봉중(사진) 명예교수가 '2024 미국 대선과 우리'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미국사를 가르치는 역사학자'인 김 교수는 TV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에 여러차례 출연해 미국 탄생의 비밀, 링컨, 경제 대공황, 총기 규제 등을 주제로 미국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며 스타강사로 떠올랐다.

김 교수는 이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교수가 미국 대통령 선거 당락이 결정된 날 봤던 뉴스 중 하나는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 1면에 대문짝만하게 쓰여진 타이틀이었다. 트럼프 사진과 함께 전면을 장식한 타이틀은 "He's been shot, convicted of a crime and branded a fascist- but he's still the people's choice" 였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는 'still' 이었어요. 제 식으로 번역을 하면 총을 맞고 범죄자이며 파시스트로 낙인 찍혔지만 '여전히' 미국 사람들은 그를 선택했다는 거죠. 사실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선택했을까요.”

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된 데 대해 세가지 키워드로 분석했다. 첫 번째는 'anger',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다. 진영간의 분노와 분열이 극에 달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진영간의 분노나 분열, 비방이 자연스럽게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도를 넘었다는



김봉중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미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12기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2024 미국 대선과 우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교수가 미국 대통령 선거 당락이 결정된 날 봤던 뉴스 중 하나는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 1면에 대문짝만하게 쓰여진 타이틀이었다. 트럼프 사진과 함께 전면을 장식한 타이틀은 "He's been shot, convicted of a crime and branded a fascist- but he's still the people's choice" 였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문구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는 'still' 이었어요. 제 식으로 번역을 하면 총을 맞고 범죄자이며 파시스트로 낙인 찍혔지만 '여전히' 미국 사람들은 그를 선택했다는 거죠. 사실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선택했을까요.”

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된 데 대해 세가지 키워드로 분석했다.

첫 번째는 'anger',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다. 진영간의 분노와 분열이 극에 달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진영간의 분노나 분열, 비방이 자연스럽게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불법 이민자나 소수 민족에 대한 분노, 흑인들에 대한 분노, 멕시코들에 대한 분노 등 앵글로 색슨 기독교 개신교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두번째 키워드는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다. 정보 혁명의 시대가 선거 결과로 연결되었다고 본다.

“백인들의 분노가 왜 조작되었나 생각해보니 정보의 문제였습니다. 정보의 홍수, 정보의 혁명 시기에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공유되고 또 조작된 정보가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SNS나 유튜브 쇼츠 영상이나 이런 대선만큼 강한 선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TV토론이 거의 모든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했다면 2008년 미 대선부터 IT가 두드러진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만 하더라도 신뢰가 가지 않는 유튜브버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번째 키워드는 '대학 교육'의 여부다. 쉽게 말해 백인 남성들을 기준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당에 투표했나를 보면 된다는 얘기가.

“이번 미국 대선을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백인들의 분노'

인거죠. 이런 성향이 강한 지역의 미국의 남부지역인데 미 남부는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미국의 미래를 볼 때 남과 북, 보수와 진보의 흐름을 보는게 중요합니다.”

김 교수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의 당선으로 결정이 났지만 걱정하고 우려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트럼프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알 수 없는 변수보다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추스려 가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경제는 세계 TOP 10에 들어가 있고 문화는 세계 TOP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성공적입니다. 혼란의 시기이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무엇보다 지도자와 정치인들 또한 외교를 할 때 당당히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2학기 강의를 마무리한 제12기 리더스아카데미는 오는 12월 3일 저녁 6시 30분 남구 여반브룩에서 졸업식과 원우의 밤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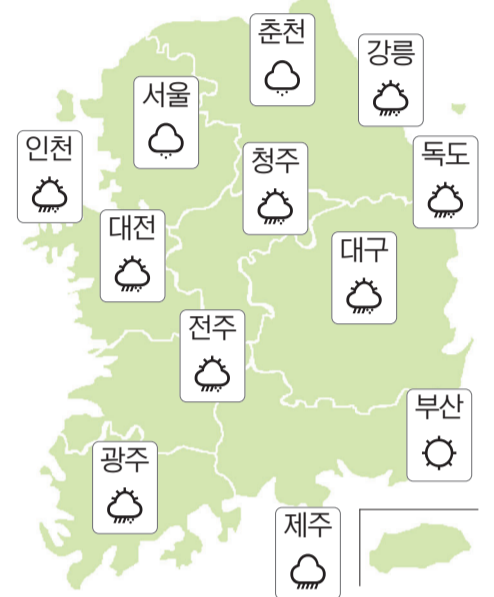
해뜨기	07:20	달뜨기	04:19
해지기	17:21	달지기	15:18

겨울의 초입

전남 동부 내륙 중심으로 1-5cm 눈 쌓이겠다.

광주	비또는눈	3/10	보성	가끔비	2/9
목포	비또는눈	6/10	순천	비또는눈	2/11
여수	비온뒤맑	5/1	영광	비또는눈	5/10
나주	비또는눈	2/10	진도	가끔비	5/11
완도	가끔비	6/12	전주	비또는눈	3/9
구례	비또는눈	1/8	군산	비또는눈	4/9
강진	가끔비	3/11	남원	눈	0/8
해남	가끔비	4/11	축산도	가끔비	7/12
장성	비또는눈	2/9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2.0~4.0	2.0~4.0
	면바다(북)	2.0~5.5	2.0~5.0
	면바다(남)	2.0~5.5	2.0~5.0
남해서부	앞바다	2.0~3.5	2.0~3.5
	면바다(서)	2.0~5.0	2.0~5.0
	면바다(동)	2.0~5.0	2.0~5.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20	12:31
	17:58	-:-
여수	00:50	07:29
	13:27	19:18

◇생활지수

미세먼지	좋음
------	----

◇주간 날씨

29(금)	30(토)	12/1(일)
3/10	6/12	5/13
2(월)	3(화)	4(수)
4/15	5/10	2/9



영·섬유역본부, 보호시설 방문 봉사활동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추운 겨울을 맞아 지난 26일 광주시 북구 소재 효정심비발요양원·효정주간보호센터를 찾아 지역사회 노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했다. <사진> 이날 영·섬유역본부 임직원들은 보호시설을 방문해 60세 이상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은 복지물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섬영역 직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매일 급여의 일부분을 모금한 '물사랑나눔펀드'로 행사 활동비를 마련하고 있다.

주인호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K-water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기업으로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조선대 의대 2회 졸업생들, 모교 발전기금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의과대학 제2회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 5500만 원을 기부했다. <사진>

조선대 의과대학(학장 안영준)은 지난 23일 '의과대학 제2회 졸업 50주년 기념 모교 방문 및 발전기금 기부식' 행사를 개최했다.

기부식에는 조선대 안영준 의과대학장, 조항훈 의과대학 동창회장, 김진주 조선대 병원장교 의대

제2회 졸업 이원구 대표 등 졸업생 13명과 재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2회 졸업생 30여 명이 "의학교육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55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한 발전기금은 학생들의 의학교육 실습비와 교육시설 개선, 장학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1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승승중(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김복순 씨 아들 도현(광주 북구청 기획실)군, 주남식(전 금호타이어 과장)·이순희씨 딸 민영(광주 북구청 주거통합돌봄과)양=30일(토) 오후 6시 광주 북구 까사디루체 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

▲김명선·김옥림씨 장남 현호(부안해양경찰서 수사과-경장)군, 박전재·정경자씨 장녀 운형(부안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양=12월 7일(토) 오후 1시 광주 광산구 메리포엠웨딩홀 지하1층 메이 에르홀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용 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

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조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마을

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물러내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축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시립산수도서관 생활문화동아리 한글 서예반 회원모집=한문서예·문인화·한글서예 동아리 '서사모' 2005년도 창립, 매주 화요일 4-6시, 회비 무료 010-3636-6410